

한국의 쌍용자동차 파업이 패배와 강력한 탄압으로 끝을 맺다¹⁾

로렌 골드너 (2009년)

평택에서 펼쳐진 쌍용자동차 파업과 공장점거가 8월 5일 77일 만에 끝났다. 5월 22일부터 작은 자동차 공장을 장악하고 거듭된 준군사적 공격에 맞섰던 976명에게, 쌍용차 법정관리인 박영태와 노조 지부장 한상균이 서명한 협약은 거의 전면적인 패배를 뜻했다. 더 나쁜 것은 항복 이후 수십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경찰의 심문을 받았으며, 아마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4천 5백만 달러가 걸린 거대한 소송, 그리고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를 놓고 개별 파업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까지 덧붙여 예정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대중적 저항을 상대로 거둔 가장 최근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극적이고 단호한 승리였다.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에 서서 통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앞으로 어떤 저항이든 갈아뭇개버리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쌍용차 파업은 여러 가지 점에서 최근 영국의 비스테인 투쟁을 비롯하여 전 세계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전투들에서 나타난 역동적인 장면들을 다시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투쟁으로는 처음으로 과감한 공장장악과 점거, 그리고 경찰·용역강패·구사대에 맞선 격렬한 공장방어를 보여주었다. 쌍용차 파업의 패배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일련의 패배들 가운데 하나인데, 앞으로의 투쟁에 좋은 조짐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쌍용자동차는 3년 전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51%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인수했다. 당시 (서울에서 약 45분 거리에 위치한) 평택공장은 8천 7백 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파업이 시작될 무렵에는 그 수가 7천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2009년 2월, 쌍용자동차는 파산을 신청하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파산에서 회생하기 위한 추가부채 담보물로 평택공장을 내놓았다. 법원은 회사가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라고 요구하면서 파산계획을 승인했다.

경영진의 전략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전체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이었다.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한 뒤, 쌍용자동차에는 아무런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차모델도 전혀 출시되지 않았다. (한국의 검찰은 중국으로 기술이전이 적법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가 되는 기술이 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

1) 이 글의 출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원이 펴내는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9년 12월호.

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2008년 12월에도 이러한 기술이전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있었다.

파산법원의 결정이 있는 뒤, 쌍용차 노동자는 4월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경고파업을 벌였다. 5월 22일에는 전면파업이 시작되었다.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노동자 1천 7백 명이 공장을 장악하고 점거하고 있었다. 파업은 세 가지 주요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정리해고 반대 2) 비정규직화 반대 3) 아웃소싱 반대. 사측은 1천 7백 명의 노동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했고, 이와 별도로 3백 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쌍용차 노동자는 전국금속노조(KMWU)에 조직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공장에서 15~20년씩 일해 왔다. 정규직 노동자는 일 년에 대략 3천만 원을 기본 급여로 받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 약 1천 5백만 원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기본 급여가 전체 급여의 일부일 뿐이다. 전체 급여에는 정규직의 경우 높은 비율의 상당한 잔업수당이 포함된다. 잔업은 1주 10시간이 보통인데, 대부분의 노동자가 필요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잔업을 받아들이며 심지어는 바라기도 한다.)

6월 중순, 약 1천 명의 노동자가 점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내들과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정리해고를 피한 약 5천 명의 노동자는 집에 있었다. 약 1천 명의 관리자들은 구사대가 되어 주로 기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거가 시작된 이후 한 대의 차량도 생산되지 않았다.

처음 몇 주 동안 평택에는 경찰들이 대규모로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자살과 뒤이어 이명박 우파 정부를 향해 고조된 분노를 표현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벌어지면서 한국에서 정치적 위기가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노골적으로 부자들 편에 서는 조치를 거듭하고 세계 경제위기가 오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잃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깊은 분노가 1백만까지 조직된 시위들로 드러나면서 허를 찔렸다. 노무현의 장례식은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노무현의 장례식 이후 (거리시위를 대비하여) 전투경찰을 풀어놓았던 정부는 평택공장 조기 공격으로 더 환멸을 조장하는 모험을 할 생각이 없었다.

6월 16일, 거대한 파업반대 집회가 1천 5백 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공장 문 바깥에서 열렸다. 이 집회에는 관리자 구사대 1천명, 용역깡패 2백 명,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니면서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노동자 3백 명이 참석했다. 전투경찰 4백 명이 근처에 배치되었으나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구사대 집회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점거 중인 노동자와 그 지지자들이 구사대 집회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였다.

구사대가 집회를 하는 동안,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근처 공장들에서 약 7~8백 명의 노동

자가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어하려고 달려왔다. 그 일부는 금속노조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 왔다.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는 공장을 빼앗으려는 경찰의 시도에 맞서 무장으로 방어할 계획을 세우고,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비축했다. 그들은 최후의 방어선으로 도장 공장 집중을 준비했다. 그들은 도장 공장에 있는 인화물질 때문에 경찰이 대형화재를 부를 수 있는 최루가스탄 발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계산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쓸모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나는 점거에 참여한 한 활동가와 대화를 나누었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들었다. 그는 금속노조가 파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 비스테온 투쟁이나 미국 자동차산업의 해체에서 노동조합들이 했던 역할과 달리, 금속노조는 공장장악과 무장방어 준비와 같은 비합법적 행동들을 지원했다. 다른 한편으로 금속노조는 사측과 협상하면서 '정리하고 반대' 요구에 집중할 뿐,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이나 '아웃소싱 반대' 같은 요구들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

공장점거 투쟁을 강화한 중심에는 각기 10명 정도의 노동자로 구성된 50~60개의 평조합원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대표자로 조장을 선출했다. 앞에서 인용한 그 활동가는 이 조장들이 가장 전투적이고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라고 말했다.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쌍용차 파업은 처음에는 우호적인 정치적 기류로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경제 전반의 위기에, 특히 세계 자동차산업의 심각한 위기에 맞닥트리고 있었다. 가까이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자체가 위기 대처를 둘러싸고 심각한 교섭을 벌이고 있었다. GM대우는 GM의 세계적인 재조직화로 타격을 받고 있었다. 비스테온의 경우에서처럼, 자본의 전략은 잘해봐야 (2006년부터 이미 진행 중이던) 점진적인 인력감소이며 심지어 노골적인 공장폐쇄로 나타날 것이었다.

6월 하순, 사측과 정부는 관망하는 자세를 접고 공격을 펴기 시작했다. 6월 22일, 파업 노동자 190명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며칠 뒤, 많은 빚을 진 채 해고된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반적인 사회정치적 분위기에 계속 긴장감이 높아졌다. 교사들로부터 성직자들까지 다양한 집단들이 정부의 가속되는 우경화를 공격했다. 집권 한나라당이 이끄는 '질서유지파'들은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북한에 대한 동조로 낙인찍었다. 파업을 지지하는 시위가 주기적으로 서울과 평택에서 열렸다. 하지만 몇 천 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6월 26~27일, 정부와 사측은 공장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재개했다. 고용된 용역강패들, 정리하고 공격을 면한 노동자로부터 충원된 수사대들, 그리고 전투경찰이 공장진입을 시도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한 폭력적 충돌이 있는 뒤 본관건물을 확보했다. 파업노동자는 애초 수립한 전략대로 도장 공장 주변으로 퇴각했다. (1월에 서울에서는 경찰과 충돌을

벌이던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섯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뒤 몇 주 동안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다음날, 사측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은 노동자의 저항이 완강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경찰과 용역깡패가 철수했다. 사측은 정부에게 교섭에 직접 스스로 관여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 투쟁을 고립시키고 파업을 무너뜨리는 데 목표를 두었던 26~27일의 공격이 있은 뒤, 공장 밖에서는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행동들이 폭넓게 펼쳐졌다. 주로 서울 중심부와 평택 지역에서 가족대책위가 벌인 가두 캠페인, 금속노조의 4시간 총파업, 가까운 공장들에서 온 금속노동자가 쌍용차 정문 앞에서 벌인 집회 등이 있었다.

7월 1일, 물 공급이 완전 차단되었다. 덥고 습한 한국의 여름 기후 속에서, 노동자는 빗물을 받아써야 했고, 화장실이 모두 막혀 드림통으로 임시변통 화장실을 만들어 써야 했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가 봉쇄되었고, 교섭은 결렬되었다.

7월 4일과 11일, 민주노총은 쌍용차 투쟁을 지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참석자는 별로 많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공장 침탈에 대응하는 전면 총파업 선언을 망설였다. 활동가들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다가오는 노동조합 선거들에 이미 마음이 가 있다고 생각했다. (7월 11일 서울 한복판에서는 927명의 활동가가 참여한 일일 단식투쟁이 또한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에서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은 실제 투쟁의 분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우 의례적인 행동이며, 허약함과 고립을 보여주는 척도일 뿐이다.)

7월 16일, 금속노조 조합원 3천명이 쌍용차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청 앞으로 모였다. 집회가 끝나고 공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이 노동자를 가로막았고 그 자리에서 82명을 연행했다. 물과 먹을 것을 들고 공장 문 앞으로 가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으나, 용역깡패들이 달려 나와 모든 물병을 터뜨려 버렸다.

7월 20일 마침내 결전이 시작되었다. 3천 명의 경찰, 용역깡패, 구사대가 퍼붓는 공격에 맞서 공장 방어를 지원하려고 다른 몇 백 명의 노동자와 함께 달려갔던 기아자동차의 한 노동자가 묘사한 전투장면을 그대로 옮긴다.

오늘 아침 5시 30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우리는 평택의 쌍용차 공장 정문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어제처럼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오전 9시나 10시쯤, 많은 버스들이 전투경찰을 태우고 정문 앞에 도착했다. 소방차도 20대 쯤 도착했다. 전투경찰 2천 명이 도장 공장 근처를 접수하려고 시도하자, 노동자는 새총과 화염병으로 맞섰다. 볼트와 너트를 날리는 새총은 사정거리가 2~300미터에 이르렀고 성능이 좋았다. 공장을 지키려고 주변에 배치

한 타이어에 불이 붙으면서 검은 연기가 공장 가득 하늘을 뒤덮었다.

사측은 물과 가스 공급을 차단했고, 바깥에서 노동자에게 어떤 물품도 전달할 수 없게 봉쇄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였다. 사측의 최우선 전략은 사람들이 지쳐서 스스로 도장 공장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날 이후, 경찰 헬기가 지붕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겨냥해 최루액을 퍼부었다.

7월 21일, 민주노총은 22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하고, 토요일인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잡았다. 금속노조는 평택공장 파업과 진행 중인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22일과 24일 부분파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 파업들은, 특히 민주노총이 철저한 이행이나 진지한 지원 없이 습관적으로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에, 분산적이고 효과도 없었다.

7월 22일 공장 문 앞에서 경찰에 맞섰던 그 기아자동차 노동자가 작성한 기록을 보자.

7월 20일부터 특수부대가 포함된 3천 명이 넘는 전투경찰이 법원의 명령서를 들고 와서 공장장악을 시도하면서 노동자에게 공장을 나가라고 명령했다. 노동자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자, 경찰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7일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고용된 용역강패들과 정리하고 당하지 않은 노동자들로 채워진 구사대들도 이 공격에 합류했다.

경찰은 24시간 내내 선무방송을 해 댔다. 경찰 헬기가 낮게 날면서 노동자들이 잠드는 걸 방해하고 노동자들에게서 기력을 뺏으려 했다. 그들은 물과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그리고 인도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봉쇄하고 있다. (전기는 페인트를 비롯하여 도장공장 안에 있는 인화물질들이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급되었다.)

21일부터 지금까지, 경찰은 도장 공장 지붕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겨냥해 헬기에서 최루액을 퍼붓고 있다. 여기에는 고무스편지를 녹일 정도의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도장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은 가끔 5만 볼트의 전기와 못을 발사하는 전기 충격 총을 사용하고 있다. 구사대들은 맞은 편 건물에서 새총을 사용한다.

우리는 파업을 방어하기 위해 공장 앞거리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 경찰에 맞서 싸우고 있다.

7월 말 현재, 공장에 남아 있는 약 7백 명의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식사 대신에 소금을 넣은 주먹밥을 먹고, 끓인 빗물을 마시고 있다. 비록 많은 노동자가 전투를 치르며 부상당했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7월 20일, 한 쌍용차 노조간부의 아내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남편은 정리하고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사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위협을 받으면

서도 투쟁에 참여했다. 그 아내는 겨우 스물아홉 살이었다. 지금까지 이 투쟁의 여파 속에서 다섯 명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월 25일, 민주노총이 평택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나고 노동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쇠파이프와 인도를 깨부순 돌로 무장하고서 전투경찰에 맞서 싸우면서 쌍용차 공장으로 행진하려고 시도했다. 경찰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우리는 공장 앞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투쟁은 평택 거리에서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민주노총은 7월 29일 6시간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조합원을 그러한 파업에 동참시키려고 조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측은 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몇몇 국회의원과 사측 그리고 쌍용차 노조가 7월 25일 만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했다. 노동자가 여전히 볼트를 던지고 있으며,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대신 해고된 모든 노동자의 무급 순환 휴직을 실시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사측은 노조의 양보를 거부했으며 정리해고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7월 27일, 쌍용차 노동자는 잠시 내부의 숨 막히는 분위기를 벗어나 도장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그 집회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1) 경찰병력 철수 2) 사측과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 3) 하이브리드 디젤엔진 기술 불법 유출에 대한 조사결과의 공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갖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지독한 탄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노동자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죽음을 불사한 우리의 결심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하루하루 투쟁을 치르면서, 용역강패와 구사대들은 도장 공장 근처를 제외한 모든 공장을 다시 장악했다. 도장 공장 입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건물에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배치되었다.

8월 1~2일 주말을 거치면서 재개된 교섭이 다시 결렬된 뒤, 도장 공장으로 들어가는 전기 공급이 마침내 차단되었다. 파업노동자는 밤에 촛불을 켜야만 했다. 마지막 전투는 8월 3일

시작되어 5일까지 계속되었다.

100명 정도의 파업 노동자가 (정부와 사측의 무자비한 폭력에 언더리를 내며) 밤중에 점거농성을 떠났다. 마지막 교섭에서 노조지부장은 파업노동자 가운데 희망퇴직(즉 위로금을 더 받는 정리해고) 52퍼센트와 1년 무급휴직한 뒤 경제적 여건이 회복 될 때 재고용 비율 48퍼센트에 합의했다. 사측은 또 영업직으로 전환하는 노동자에게는 1년 동안 달마다 55만 원씩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그 뒤 많은 노동자가 구속·기소되고 사측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욕적인 일들이 계속되었다. 개인적인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극빈자로 내모는 한국의 노동법 아래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사측은 파업 때문에 3천 1백 60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약 1만 4천 6백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부와 사측이 가하는 계산된 보복은 모든 잠재적 저항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 수위의 상승을 명확히 보여준다. 1년 전인 2008년 여름, 12달을 끌어오던 이랜드 파업이 패배로 무너졌다. 2007년 여름 파업에 나섰던 1만 명 가운데 많은 이들이 처음에 거부했던 끔찍한 조건을 받아들이며 일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이들은 이미 다른 일자리로 옮겼다. 이랜드 노동자는 되풀이해서 매장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그리고 파업파괴자들이 매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호위하려는 경찰과 용역강패에 맞서 여러 차례 싸웠다. 하지만 패배한 뒤에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밀어닥치는 것과 같은 보복을 당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1961~1979년 박정희 독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이 첫째가는 아시아 호랑이로 등장했던 영광의 시대 말이다. 박정희의 딸은 한나라당의 2007년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이명박에게 근소한 차로 패배했다. 대체로 박정희 독재를 장미 빛으로 채색하는 관점은 경제적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잔인한 억압을 경시하거나 무시한다. 이런 관점은 최근 한국 사회에 널리 퍼졌는데, 1990년대 초반의 울퉁불퉁 성장과 무엇보다 1997~98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되었다. (IMF가 57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 내건 주요 조건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대폭 높이라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노무현 정부가 부과한 고급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을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돌려주기까지 했다. 쌍용차 파업 동안, 이명박 정부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은 미디어 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 법은 루퍼트 머독 유형처럼 미디어들이 몇 개의 큰 재벌로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작고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일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국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주의자라는 단순한 사실을 이유로 사회주의 조직들을 체포했다. 친북 서적을 판매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서점 주인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 법은 한국전쟁 이전에 몇 십 만 명의 좌익을 살해했던 내전 기간인 1948년에 제정되었다.

쌍용차 투쟁의 패배는, 처음부터 교섭이 “정리하고 철회”라는 협소한 지점으로 빠지도록 허용했던 금속노조 전국조직의 절름발이 역할 때문만은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조지부장은 비록 마지막 항복문서에 서명하긴 했지만, 정리하고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점거파업 현장을 끝까지 지켰다.) 경제위기라는 조건도 쌍용차 투쟁의 패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미친 부정할 수 없는 영향에 덧붙여,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제 전체 노동력의 50% 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 비정규직화를 통한 한국 노동계급의 끊임없는 후퇴다. 가까운 공장에서 온 몇 천 명의 노동자가 되풀이해서 쌍용차 파업을 지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비록 영웅적인 끈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쌍용차 파업의 패배는 지배적인 사기저하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방어적인 전투를 치를 뿐만 아니라 공세적으로까지 나아가는 지지 세력을 충분히 폭넓게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참조: Loren Goldner, 『한국의 노동계급: 대중파업으로부터 비정규직화와 패퇴까지, 1987-2007』 (“The Korean Working Class: From Mass Strike to Casualization and Retreat, 1987-2007”)

옮긴이: 양준석